

금요일예배 설교노트 - 시가서 시리즈 (2)

설교자: 김영목 목사

“시편 - 주를 향한 노래” 시편 150편 1-6절

- **저 자:** 시편 총 150편 중 50편은 저자 미상이다. 저자를 알 수 있는 나머지 100편 중 다윗이 73개로 가장 많이 기록함. 아삽 12개(50편, 73-83편), 고라 자손이 10개(42, 44-49, 84-85, 87편. *참고로 시편 88편도 고라 자손의 시이다.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총 11개로 보기도 한다. 여기에서는 88편을 '헤만의 시'로 따로 구분했다.) 솔로몬 2개(72, 127편), 모세 1개(90편). 헤만 1개(88편), 에단 1개 (89편).
- **기록연대:** 모세의 시 기록 연대는 주전 1500년 즈음이다. 바벨론 포로 이후(주전 400년 즈음)에 기록한 시도 있다. 따라서 시편은 약 천년 동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. 시편에 등장하는 시 중 가장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쓰여진 시가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 때 쓰여진 것으로 볼 때 총 아마도 주전 4세기 때 시편이 편집/배열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. (ex. 시편 85편은 유다 포로들이 제1차 귀환 때 B.C.538에 기록한 시로 추정한다.)
- **시편의 형식**
 - 1) **찬양시:**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.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찬양함, 시온에 거함을 찬양함 (시편 48-1:2)
 - 2) **탄식시(탄원시, 간구시):**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는 시.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하는 시.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무리됨
 - 3) **감사시:** 하나님의 보살피심, 구원하심, 기도에 응답하심 등에 대한 감사의 화답
 - 4) **지혜시:** 지혜 문학적 관심들을 다루고 있는 시. '악인의 번영과 성공 또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대비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' 교육적 의도를 가진 시
 - 5) **그 밖의 형식:** 제왕시, 신뢰시, 회상시, 순례시, 시온시 등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.
- **시편의 구성:** 토라(Torah, 모세오경)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반영함.
 - 1권: 1-41편
 - 2권: 42-72편
 - 3권: 73-89편
 - 4권: 90-106편
 - 5권: 107-150편
- **시편의 표제어**
 - 1) **저자(개인이나 집단) 명시:** '다윗의 시', '고라 자손의 시'
 - 2) **역사적 사건들의 배경:** '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'
 - 3) **음악반주 지침:** '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'
 - '믹담': 속죄
 - '마스길': 교훈을 위하여
- **시편에 등장하는 '셀라'는 무엇인가?**

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71번 사용.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다. '셀라'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다. '향상/영원히'라는 의미로 해석, '소리를 크게 하다'라는 악상 기호로 해석 '찬미를 위해 하나님께 엮드리라'는 예배의 지시로 해석, 그러나 음악적 용어로 '일시 멈춤'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. 이 경우 셀라는 노래 중 잠시 현악기를 통한 간주 부분을 뜻하거나,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해석한다.

- 시편의 내용 (1-3권까지 비율로 보면 '찬양시'보다 '탄식시'가 더 많다. 4-5권으로 가면 '찬양시'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진다.)

1권: 1-41편 “(시 41:13)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라도 아멘 아멘”

1-2편: 시편 전체의 서론을 담당하고 있다.

1편	1-3절 (의인/신자의 생활 방식), 4-5절(악인/불신자의 생활방식), 6절 (두 가지 삶의 방식의 결과)
2편	1연(1-3절): 악인/죄인/오만한 자들의 주장 2연(4-6절):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(내가 나를 대신하여 통치할 왕을 세울 것이다!) 3연(7-9절): 여호와를 대신할 왕(메시아)이 말씀하심 4연(10-12절): 시인의 결론 =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왕인 그의 아들을 의지하고 따르라,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.

15-24편

15편	A.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라!
16-18편	B. 과거: 다윗왕이 구원을 간구함 →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심
19편	X.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!
20-23편	B'. 미래: 메시아가 구원을 간구함 →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방을 통치할 나라를 주심
24편	A'.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라!

[* 히브리어 문학의 '키아즘구조' (Chiasmic Parallelism). 대칭병행순환구조]

2권: 42-72편 “(시 72:19)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이다 아멘 아멘”

42-49편: 고라 자손의 시.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'고핫의 손자'이다.

레위의 세 아들(게르손, 고핫, 므라리)의 후손이 각각 아삽, 헤만, 에단이다.

72편: 미래의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묘사하는 시로 끝을 맺음

메시아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란 약속을 성취할 것.

3권: 73-89편 “(시 89:52)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아멘 아멘”

89편: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한다. 특별히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
다윗 왕국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.
주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말라는 내용으로 끝맺는다.

4권: 90-106편 “(시 106:48)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이다 할렐루야”

90편: 4권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.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기억하게 한다.

93-99편: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

5권: 107-150편 “(시 150:6)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”

107-110편: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셔서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증하는 일련의 시로 시작

113-118편: 할렐시.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에서 불렀던 노래들 (예를 들면 114편)
유대인들은 113-114편은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고, 115-118편은 식사 후 불렀던 것으로 전해진다.
할렐시 마지막에는 118편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

119편: 말씀에 대한 시.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따라 지어진 경교한 시다. [* 아크로스틱 구조(acrostic" structure)
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. 그래서 시도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. 한 연당 8개의 구절. 총 176 구절이다.

120-134편: 순례의 시.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(성전에 올라가는 노래).
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는 것. 메시아가 오실 것을 희망하며 부른 노래.
순례의 시 묶음도 '할렐시'와 마찬가지로 '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'로 마무리됨.

146-150편: 찬양의 시.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. 시편 전체의 피날레로서 결말을 웅장하게 마친다.
'할렐루야'는 히브리어로 '여호와를 찬양하라'는 명령이다.